

북스

Books

인류는 어디서 탄생했고 어떻게 이동했나

인류의 위대한 여행

앨리스 로버츠 지음

노마드의 피는 과거에 더 뜨거웠다. 먹을 것을 찾아 더욱 나은 생활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떠나고, 정착하며 인류는 오늘날의 삶을 일궈냈다. 에티오피아 오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 화석이 발굴됐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 전세계로 널리 퍼졌다는 '아프리카 이브' 이론이 맞다면 인류는 이곳에서 끝없는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인도의 잘라푸람과 말레이시아의 페라크, 호주,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까지 인류는 '위대한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여행'은 영국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앨리스 로버츠가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전세계를 누비며 고고학과 고인류학 유적지를 돌아본 기록이다. 아프리카에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인류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다.

또 유적들이 발견된 지역을 여행하며 그곳을 소개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을 통해 과거를 유추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은 어디서 처음 생겼고, 어디서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학적 유추는 다양하다. 인류학자들은 발굴된 뼈를 사람이냐 침팬지냐의 그것과 비교해 연구하고, 구석기 고고학자들은 석기의 형태를 분류해 추론해낸다.

또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밝히기 위해 화석이나 유물이 발굴된 지층을 연구하고, 고기후학자들은 과거의 기후변화를 살핀다. 이 밖에 유전학자들은 화석에서 채취한 고대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단서로 인류 진화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저자는 현생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현장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연구 결과를 통해 인류의 대이동을 추론한다.

저자가 밝힌 여정의 출발지는 현생인류가 처음 출현한 아프리카다. 이곳에서 지금도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가는 부시만 부족을 방문해 경쟁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화살을 들고 나선 사냥에도 동행한다.

또 인도의 잘라푸람과 말레이시아의 페라크를 거쳐 호주까지, 거기서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까지 현생인류의 이동경로를 짚는다.



인류는 끝없는 여행을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사진은 최근 서울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게리족의 전통춤 공연 모습. /연합뉴스

유전학자들은 동아프리카에 살던 호모사피엔스(슬기사람)의 수를 500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적은 수의 인류 집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위대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앞으로도 인류가 살아남기를 바라다면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관련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발견된 유적과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기 쉽게 안내해준다. 또 다소 딱딱한 주제인데도 소설 식으로 글을 풀어 책 읽는 재미를 더했다.

책과함께 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화·설화 등에 나타난 한국인 사랑·짝짓기 분석

인문학 석학 김열규(79) 서강대 명예교수가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는 사랑철학 강의 '한국인의 에로스'가 나왔다. '소나기'와 같은 소설을 비롯해 신화와 설화, 동화,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랑과 관계 맺기의 방식을 분석했다.



신화시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인의 짝짓기와 혼례, 연애 등 남녀 관계를 두루 섭렵한 저자는 다소 외설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한 소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야기한다.

조선시대에는 결혼만큼은 여성이 우월권을 갖고 진행함으로써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한다.

〈공리·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항항포포 港港浦浦

한승원 지음



고향 장중에 기거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씨가 일흔 둘의 나이에 말랑말랑한 로맨스 소설 '항항포포 港港浦浦'를 펴냈다. 제목 '항항포포'는 이 땅의 모든 항구와 모든 포구라는 뜻의 말 조합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동행하는 내용의 이번 소설은 소설가 자신이 그랬듯,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고 또 새 길을 찾아 해매는 이야기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주인공 임종산은 순한 아내와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소연'이라는 여인에게 끈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잃어버린 '삶의 길' 찾기

빛을 지고 있다. 임종산이 출장하던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은밀한 사랑을 나누던 사이이다. 임종산에게 계속 탈락하는 소연은 종산의 권유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결국 그녀는 임신과 중절을 거듭하다 병을 얻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소설은 임종산이 "오래전에 그의 영혼 한 자락을 움켜잡은 채 심연 속으로 들어간 물귀신 같은 소연"에게 이끌려 나선 여행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떠난 길에서 임종산에게 '묘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길을 잃어버렸다며 동행을 청한다. 당혹스럽고 의심스러우면서도 마음 한 편으로는 자신의 본명과 작품까지 훤히 아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매혹적인 젊음에 이끌려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

미스코리아 광주 출신인 '묘연'은 지금의 남편인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납치돼 강제로 결혼 생활을 했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 도망친 길이었다.

임종산은 '묘연', 그리고 추억 속의 '소연'과 함께 흑산도, 홍도, 목포, 제주, 울릉도 등 여러 섬과 항구를 돌며 삶 속 잃어버린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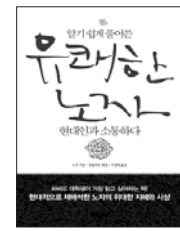
한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오래전부터, 바다 속에 한 여자를 묻어 놓고 사는 한 소설가의 이야기, 성스러움과 속됨의 길항 속에서 잃어버린 길 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이 책의 화두는 사랑과 자유에 대한 신앙적인 복종, 혹은 성스러움과 속된 세상바다 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현대문학·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김상덕 평전=독립운동가이자 반민특위위원장을 지낸 김상덕(1891~1956년) 선생에 관한 최초의 평전. 민족의 독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김상덕 선생의 희생과 고난에 찬 삶을 기록했다. 김상덕 선생의 험난했던 인생 여정에 동행했던 외아들 정복씨의 생생한 증언도 담겨 있다. 〈책보세·1만8900원〉



▲유쾌한 노자=동양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알기 쉽게 풀어쓴 고전 읽기' 시리즈의 첫 번째 권. 중국 푸단대 중문과 교수인 왕용하교가 노자의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갈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고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을 준다. 참다운 삶의 가치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돌아보게 한다. 〈베이직북스·1만3000원〉



▲산들내 민들레=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고급다는 말을 못했다' 등을 낸 김규성 시인의 산문집. 도시를 벗어나 담양의 산속 골짜기 '글을 낚는 집'으로 거처를 옮긴 시인이 산속에서 만난 초목과 꽃과 약초,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이 땅의 산, 그 주인인 초목, 그 언어인 모국어에 그들이 써준 악보로 그랬다"고 고백한다. 〈문학들·1만원〉



▲바다, 섬을 품다=시인이자 섬 전문가인 박상근씨가 전국의 아름다운 섬 40곳을 소개한다. 20여 년 동안 전국의 섬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 섬 마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광이 담긴 사진과 함께 풀어냈다. 먹물거리, 불거리 등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상세히 담았다. 〈이지북·1만5000원〉



▲즐거운 지식=일간지 기자 고명섭씨가 최근 4년간 리뷰한 187편의 서평을 묶었다. 지적의 '시차적 관점',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 지식인의 자기과시가 아니라 세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진지한 도전이란 관점에서 선정한 책들이다.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사계절·2만5000원〉



▲일터전쟁-넥스트 비즈니스=벌지 않은 2020년, 비즈니스의 현상인 일터는 어떻게 변할까. 미래의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키워드를 정리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서 발 빠른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각종 인사관리 시스템과 조치들을 소개한다. 기업과 개인이 경제 생존권을 두고 벌이는 미래 경쟁 사나리오를 생생하게 전망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6800원〉



▲너, 외롭구나=일명 무규칙이종예술가로 활동하는 김형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카운슬링' 코너에 올라 온 청춘들의 고민과 자신의 답변을 모았다. 2004년 출간된 책으로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30여개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친구와 가족, 연인 등 여러 유형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날카로운 조언을 한다. 〈예담·1만4000원〉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인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